

류현진, 사이영상 예측서 '1위' 질주



매서운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는 류현진(32·LA다저스)이 메이저리그(MLB) 최고 투수에게 수여되는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1위를 달렸다.

류현진은 20일(한국시간) 현재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74.9점을 얻어 내셔널리그 1위를 질주했다. 2위는 다저스 미우리 투수 켈리 잰슨인데 61.6점으로 류현진과 격차가 크다.

류현진은 올 시즌 9경기에 선발 등판해 6승 1패 평균자책점 1.52를 기록했다. 양대리그를 통틀어 평균

자책점과 다승 부문에서 1위다. 또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에서 0.742로 1위, 탈삼진/볼넷 비율에서 14.75로 역시 1위다.

베어남 성적에 이제 사이영상의 유력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ESPN 사이영상 예측은 야구 통계학자 빌 제임스와 ESPN 칼럼니스트 롭 네이어가 함께 만든 공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투구 이닝, 자책점, 탈삼진, 승패, 세이브, 완봉승 등을 공식에 대입해 사이영상 포인트를 계산한다. 소속팀이 지구 1위를 달리면 승리 보너스 12점을 추가로 얻는다.

ESPN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 수여되는 상
美 스포츠 매체 ESPN·툼 탱고 예측

류현진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루이스 카스티요(신시내티 레즈)가 55.6점, 잭 그레인키(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55.1점, 잭 데이비스(밀워키 브루어스)가 53.3점으로 뒤를 잇고 있다.

류현진은 또 다른 사이영상 예측 시스템인 톰 탱고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가 톰 탱고가 고안한 사이영상 포인트 계산은 ESPN 공식보다는 간단하다. 투구 이닝을 2로 나눈 수치에서 자책점을 뺀다. 여기에 탈삼진을 10으로 나눈 수치와 승수를 더해 점수를 계산한다.

류현진은 59%이닝을 던지고 자책점 10점을 기록했다. 삼진은 59개를 잡았다. 공식에 대입하면 (59%이닝/2-10)+(59/10)+6으로 31.6점을 얻는다.

카스티요가 30.4점으로 2위, 저스틴 벨렌더가 29.9점으로 3위, 데이비스가 25.9점으로 4위, 타이러 글래스노(탬파베이 레이스)가 25.7

점으로 5위다.

한 통계 사이트는 톰 탱고 사이영상 포인트 공식이 2006년 이후 사이영상 수상자 예측에서 ESPN 사이영상 포인트 공식보다 더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다고 전했다.

사이영상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의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인단은 각 리그 투수들에게 1위표(5점), 2위표(3점), 3위표(1점) 등을 나눠 표를 던진다. 점수를 합산해 양대리그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사이영상의 영예가 돌아간다.

류현진은 빌 제임스의 또 다른 통계인 시즌 점수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를 차지했다.

제임스는 승패, 세이브, 탈삼진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뒀 더하고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둔 패배와 볼넷 등을 뺀다. 여기에 자책점을 가미해 시즌 점수 공식을 만들었다.

류현진은 109.7점으로 내셔널리그 1위를 질주했다. 아메리칸리그 1위인 벨렌더가 111.2점으로 류현진보다 높다.

뉴스스



담양군 팀이 우승 시상을 마치고 장귀남(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김용근(담양군게이트볼협회)회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전라남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장귀남)가 지난 21일 해남군 우슬축구 전용구장에서 전라남도과 해남군 스포츠사업단의 후원으로 '제29회 전라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경기에 앞서 장(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남 게이트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67개 팀 선수 임원은 12개 코트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내는 데에 불꽃 튀는 경쟁 끝에 나주시 A팀과 담양군 A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최규대(주장)선수가 이끄는 담양군 A팀(주장 최규대, 최종덕, 김경오, 최성용, 이영효, 김원택 선수는 나주시 A팀과의 결승에서 나주 A

도내 21개 시·군 대표 67개 팀 선수 임원 800여 명 치열한 격돌
우승 담양군 A팀, 준우승 나주시 B팀, 공동 3위, 순천 A팀-진도 A팀

쏟아진 전라남도과 해남군 그리고 해남군게이트볼협회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대회가 벌써 전남 게이트볼의 29년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뜻 깊은 날로 동호인 여러분은 승패에 치중하기보다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사)대한게이트볼협회 맹수일 회장이 개회식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게이트볼이 이제 국민여과문화로 선도해온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며 "선진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전남이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는 도내 시군을 대표한

팀을 15대 6의 큰 점수 차로 가볍게 따돌리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담양군 A팀 김용근(담양군게이트볼협회장) 감독은 "각 시군 동호인들의 기량이 뛰어나 우승까지의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쁘다."며 "오늘의 영광을 그동안 열심히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 여러분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게이트볼협회 장귀남 회장은 입장 팀 시상을 마치고 폐회사에서 "입상을 한 시군 선수들을 격려하고 내달 3월 영암군에서 열릴 전라남도지사기대회에서 건강 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대회를 마무리 했다.

이홍재 기자

손흥민, 토트넘 선수단 활약상 평점 가장 높은 8점

포체티노 감독 9점 최고...해리 케인은 7점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손흥민(토트넘)이 영국 언론으로부터 또 다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21일(한국시간) 2018~2019시즌 토트넘 선수단의 활약상을 평점요소 요약했다.

손흥민은 안 베프톤인 무사 시소코,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선수들 중 가장 높은 8점을 받았다. 함께 DESK 라인으로 통했던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케인(이상 7점)보다 높은 점수다.

이 매체는 손흥민을 두고 "토트넘 올해의 선수다. 케인이 부상을 당했지만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전 귀중한 골을 포함해 모든 대회에서 20골을 넣었다"며 "한국 국가대표로 두 차례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도 이뤘던 업적"이라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2골,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4골 등으로 활약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는 홀로 3골을 넣으며 4강 진출에 일조했다. 아약스(네덜란드)와의 4강전마저 넘어선 토트넘은 다음달 2일 리버풀과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선수단 최고 평점은 9점의 미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 돌아갔다.

인디펜던트는 "영입도 없었고 세구장으로 가는 일도 지연됐다. 부상으로 감독 생활 중 최악의 위기에 놓였었다"면서 "그러나 포체티노 감독은 팀을 확보했고, 토트넘을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다. 시즌 초반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를 영입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짚었다.

뉴스스



K리그2 대전 시티즌 고종수 감독 '경질'

프로축구 K리그2 대전 시티즌이 성적 부진과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고종수(41)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

박철 스카우트가 일단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 대전 사령탑에 앉은 고 감독은 1년 반 만에 불명예스럽게 팀을 떠나게 됐다.

경질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성적이다. 대전은 지난해 K리그2 4위에 올라 플레이오프를 통해 K리그 승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K리그2 광주FC, 개막 12경기 무패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광주 FC가 개막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단독 선두를 지켰다.

광주는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서울 이랜드FC와의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2(2부리그) 2019 12라운드에서 김정환, 윌리안, 여름의 팀플레이를 앞세워 3-1 완승을 거뒀다.

개막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단독 선두를 지켰다. 7승5무(승점 26)를 기록 중이다.

K리그2(1부리그)와 K리그2를 통틀어 패배가 없는 팀은 광주가 유일하다.

이랜드는 1승5무6패(승점 8)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근 6경기에서 2무4패로 승리가 없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배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륵,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